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2차]



2012. 1. 19.

등록금심의위원회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년 1월 19일(목) 10:00 ~ 11:30
2. 장 소 : 부총장실 회의실(행정관 2층)
3. 참 석

구 분	인 원	성 명	비 고
위 원	8명	하미승(부총장), 유재원(기획조정처장), 한진수(학생복지처장), 심경보 (예산기획팀장),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최치국(비상대책부위원장), 임진용 (등록금협의회 대표), 이수정 (등록금협의회 대표),	
간 사	2명	정우영(학생복지팀 과장), 최가영 (예산기획팀 직원)	

4. 안 건

- o 건국대학교 학생대표측 요구자료 설명 및 질의 응답

5. 회의내용

하미승 위원장은 위원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1차 회의에서 요청하였던 학생대표 측 요구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 및 학생측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하다.

이해찬 위원은 추적 60분에서 대학들 예결산안 차액에 대해 방송된 것을 언급하며 건국대학교도 290억원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설명을 요구하다.

심경보 위원은 2010학년도 서울·글로벌 캠퍼스 합쳐진 총금액이 약 302억원이라고 말하며 그 중 서울 해당분은 98억,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은 71억으로 그 금액이 2010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라고 말하다. 71억원 중 이월사업으로 13억원, 나머지 58억원은 불용액으로서 세입부족분 충당금액으로 쓰였다고 말하다.

이해찬 위원은 세입부족분을 막을 수 없는지 질의하다.

심경보 위원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서울 캠퍼스의 경우 예산규모가 2000억을 초과하는 규모임에도 불용액이 58억원인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며 예산은 정확하게 짤 후 아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다음 회의에서 적립금을 논의하고 오늘 회의는 결산예산액의 상세

